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조 미 정

맘스톡톡심리상담센터 / 소장

이 주 연†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 소재의 초등학교 6개교와 같은 지역에 위치한 소아치과병원, 학원, 교회 등을 통해 편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65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관계형성 어려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 모든 영역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가 하위변인에 따라 달라짐을 고려하여 상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감각처리 민감성, 양육행동, 정서행동문제, 조절효과

\* 본 연구는 조미정(2022)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및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주연,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Tel: 062-530-1320, E-mail : idscot@jnu.ac.kr

아동은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교라는 구조화된 집단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또래관계와 학습에 집중되어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학업적 성취나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적응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최근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부적응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백종화, 2009). 그런데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아 문제행동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된 경우가 많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Hamberg, 1992). 특히 초등학교 4~6학년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에 접어드는 단계로, 이 시기에 시작되는 문제행동은 청소년기 이후에 발현되는 부적응문제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그러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이나 정신병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기 정서행동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아동기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더욱더 중요하다.

정서행동문제는 아동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행동으로 환경에 대해 정서 및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Kauffman, 199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출생 초기부터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학령기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이므로 여전히

어머니의 보살핌과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적응은 달라질 수 있다. 그중 이 정서행동문제는 부모의 양육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송하나, 2017; 이형민, 2019; 장진아, 신희천, 2006; 조윤미, 이숙, 2015; Khaleque, & Rohner, 2002)에서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혜련(2003)은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과잉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행동, 미성숙 행동 등이 낮아지고, 이경님(2004)도 어머니가 애정적일수록 자녀는 비행과 공격성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통제적일수록(곽소현, 김순옥, 2006; 이경님, 2004), 거부적이고 체제를 많이 할수록(백종화, 2009) 아동의 비행 성향과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방임할 때 아동은 신체 증상과 위축 행동을 보이며, 주의집중문제(길혜지, 황정원, 2017)도 나타남이 보고되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반응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데, 감각처리 민감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감각처리 민감성은 예술영역에 대한 지각, 타인의 기분에 대한 알아차림, 배고픔이나 고통과 같은 감각에 대해 더욱 강렬하고 깊이 있게 느끼고 처리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Aron, & Aron, 1997). 즉, 외부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을 처리하는데 민감한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환경이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Belsky, & Pluess, 2009, 2013)는 것이다.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치 수준이 낮아,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미묘한 차이를 더 잘 발견하는 경향성이

있고, 반대로 민감성이 낮은 경우는 영향을 덜 받는다(Liss, Timmel, Baxley, & Killingsworth, 2005). Booth, Standage와 Fox(2015)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는데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환경적 자극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였다. 이 아동들은 자극을 더욱 깊이 있게 처리하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며, 외부의 개입을 더욱 강하게 내재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금까지 연구된 감각처리 민감성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반 아동의 감각처리 민감성도 공격성이나 활동성 및 충동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정서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사회·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적응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Aron, & Aron, 1997; Drake et al., 2006; Goldsmith, Van Hulle, Arneson, Schreiber, & Gernsbacher, 2006; Kinnealey, & Fuick, 1999).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복잡하며 정서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내적으로 자극을 많이 받으므로 불안을 쉽게 느끼게 된다(Liss, Mailloux, & Erchull, 2008). 그리고 자극에 대한 높은 반응성은 스트레스 수치 상승을 유발하여 신체화 문제와 사회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Smolewska, McCabe, & Woody, 2006). 또한 감각 역치가 낮아 감각자극을 극단적으로 지각하고 압도당하여, 정신건강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Hershfield et al., 2007). 그 외에도 감각처리 민감성은 사회공포증(Neal, Edelmann, & Glachan, 2002), 회피성 성격장애(Meyer, & Carver, 2000), 불안과 우울(Liss et al., 2005),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Benham, 2006)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감각처리 민감성은 긍정적·부정적 생활사건(life events)과 상호작용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요한 대상인 어머니로부터 경험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감각처리 민감성과 같은 특질적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 연구자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ron(2012)은 긍정적인 양육환경과 감각처리 민감성이 상호작용하여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Slagt, Dubas, Van Aken, Ellis와 Deković(2018)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높은 긍정적 양육을 주로 받고 부정적인 양육을 적게 받았을 때 정서행동문제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양육을 주로 받고 긍정적인 양육을 적게 받았을 때는 정서행동문제가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매우 민감한 사람은 부정적인 양육 환경 내에서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겪고(Aron, Aron, & Davies, 2005), 어머니와의 유대 수준이 낮을 때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Liss et al., 2005). 또 다른 연구(Ahadi, & Basharpour, 2010; Liss et al., 2005)에서도 어머니의 보살핌과 아동의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밝혔는데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보살핌이 적었을 때 더 많은 우울 증상을 보였으나 보살핌을 많이 받았을 때는 두 집단 간 우울 증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개인의 감각처리 민감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양육 환경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은 환경에 대한 개인 간 반응의 차이(Ellis, Boyce, Belsky,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11; Liss et al., 2005; Pluess & Boniwell, 2015)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감각처리 민감성 변인의 조절적 기능을 더 많은 변인과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소개한 연구들이 모두 국외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각처리 민감성에 관련된 국내 연구를 보완하고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변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조봉환, 임경희(2003)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주의산만이나 과잉행동,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는 어머니나 교사의 주의를 끌어 관찰과 측정이 되지만, 아동이 스스로 겪고 있는 또래들 간의 문제나 정서조절, 신체 증상, 불안, 위축과 같은 정서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측정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학자들(고려원, 박중규, 오경자, 1997; 국립특수교육원, 1999)도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대부분 어머니나 교사와 같이 오랫동안 아동을 관찰해온 성인에 의해 측정됨에 따라 아동의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도구를 통해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정서적, 행동적, 관계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고자 한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연구한 기존 선행연

구들은 정서행동문제의 총점이나, 내재화나 외현화로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행동문제 각각의 하위변인에 초점을 두고 차별적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Robles, Claustre, Ballabriga, Diéguez와 Silva(2012)는 감각처리조절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의 차이를 밝혔는데 위축, 주의집중 문제의 점수가 다른 하위변인에 비해 특히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명선과 하은혜(2019)는 감각처리 문제를 지닌 아동을 확실한 문제 군과 가능 군, 그리고 정상군으로 나누고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서행동문제 각각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보고식 응답이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령 대상은 학교생활에서 감각 과잉 반응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아동들은 학교의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을 가정보다 더욱 자극적으로 느끼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부족한데, 이는 더욱 높은 학업적 성과를 요구받기 때문이다(Miller & Summers, 2001). 이 연령대의 아동들은 아직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적 자극과 상호작용하여 적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 및 정서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

에 대한 차별적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아동 상담자들이 내담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유형이 발전해 온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 아동과의 상담 전략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부모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가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65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오프라인 표집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총 6개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에게 500부를 배부하여 어머니와 아동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30부를 수거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 5부를 제외한 325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온라인 표집은 광주, 전남 소재 소아치과병원, 학원, 교회 등에 방문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과 어머니 500여 명 중 연구에 동의한 351개 질

문지를 수거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와 동의란에 표시하지 않은 9부를 제외하고 총 334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325부와 온라인 334부를 합쳐 총 659부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4학년 38.1%, 5학년 26.7%, 6학년 34.6%이며, 성별 분포는 남자 43.3%, 여자 56.0%로 나타났다. 형제 수로는 외동이 47.2%로 가장 많았고, 자신을 제외하고 형제가 1명 37.8%, 2명 12.3%, 3명 이상 2.0% 순으로 나타났다.

### 연구도구

####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 보고형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총 40문항으로 관계형성 어려움 9문항, 신체화 9문항,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8문항, 공격행동 6문항,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개발자가 명명한 하위요인 4명을 면밀히 살핀 결과 '부적절한 감정표현' 요인이 부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문항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처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하위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개발자인 조봉환, 임경희(2003)가 보고한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전체 .91이었고, 관계형성 어려움 .83, 신체화 .8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78, 공격행동 .76,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6이며, 관계형성 어려움 .89, 신체화 .8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87, 공격행동 .85,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88이었다.

###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영애(1995)의 아동용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온정 및 수용적, 거부 및 통제적, 허용 및 방임적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80문항으로 아동이 응답하기에 문항 수가 많고 응답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하는 방법은 하위요인별로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허용 및 방임적은 최초 문항 수가 적어 .30 이상을 기준으로 함)을 기준으로 하였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10문항씩을 선정하여 총 30문항을 추출하였다. 정문자, 김문정(2004)은 이러한 문항 선정 절차를 통해 얻은 문항을 재 요인 분석하여 박영애(1995)의 원척도 문항과 비교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고 측정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응답 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어 있다. 정문자와 김문정(2004)이 보고한 본 척도의 신뢰도의 전체 신뢰도는 .80이었고, 하위 변인들의 신뢰도는 .76 ~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Cronbach's  $\alpha$ 는 .94이었고,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 .89,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 .90,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이 .91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해당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 아동의 감각처리 민감성 척도

감각처리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Weyn 등(2021)이 개발한 아동용 환경적 민감성 척도 HSC-21(The Highly Sensitive Child Scale-21 Item Version)를 사용하였다. Weyn 등(2021)은 총 38개 초기 문항을 11세~14세 아동에게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21문항을 추출하였고, 이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요인 분석(요인수 1)한 후 사용하였다. 번안하는 과정에서 먼저 연구자와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은 심리학 박사가 함께 번역하고, 영문학과 교수와 아동심리 박사 2인에게 번역의 타당성을 재차 감수 받았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부감각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개발자가 보고한 Cronbach's  $\alpha$ 는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량을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고, Pearson 상관계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1을 적용하였고, 표본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은 관계형성 어려움( $r=-.42, p<.001$ ), 신체화( $r=-.34, p<.001$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r=-.39, p<.001$ ), 공격행동( $r=-.39, p<.001$ ),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r=-.42, p<.001$ )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관계형성 어려움( $r=.51, p<.001$ ), 신체화( $r=.47, p<.001$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r=.54, p<.001$ ), 공격행동( $r=.58, p<.001$ ),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r=.61, p<.001$ )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

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도 관계형성 어려움( $r=.51, p<.001$ ), 신체화( $r=.48, p<.001$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r=.45, p<.001$ ), 공격행동( $r=.52, p<.001$ ),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r=.65, p<.001$ )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감각처리 민감성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관계형성 어려움( $r=.26, p<.001$ ), 신체화( $r=.37, p<.001$ ),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r=.16, p<.001$ ), 공격행동( $r=.27, p<.001$ ),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r=.23, p<.001$ )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표 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N=659)

	1	2	3	4	5	6	7	8	9
1	1								
2	-.56***	1							
3	-.42***	.62***	1						
4	-.05	.20***	.18***	1					
5	-.42***	.51***	.51***	.26***	1				
6	-.34***	.47***	.48***	.37***	.59***	1			
7	-.39***	.54***	.45***	.16***	.46**	.64***	1		
8	-.39***	.58***	.52***	.27***	.57***	.69***	.72***	1	
9	-.42***	.61***	.65***	.23***	.61***	.68***	.61***	.79***	1
M	32.18	19.36	17.96	89.05	19.32	20.11	19.46	13.30	15.23
SD	4.77	6.31	6.04	17.46	6.92	7.06	6.62	5.02	6.29
왜도	.09	.40	.52	-.08	.28	.25	-.06	.26	.79
첨도	-.50	-.66	-.45	.53	-.73	-.66	-.80	-.73	-.32

주. \*  $p<.05$ , \*\*  $p<.01$ , \*\*\*  $p<.001$

1. 온정수용, 2. 거부통제, 3. 허용방임, 4. 감각처리 민감성, 5. 관계형성 어려움, 6. 신체화, 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8. 공격행동, 9.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조절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변인과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들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 효과 결과를 제시하는 데 독립변수가 투입된 단계 1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투입된 단계 2를 생략하고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를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 각각에 대해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관계형성 어려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외의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하위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 결과는 감각처리 민감성( $B=.28, p<.01$ )이 높을수록 관계형성 어려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항( $B=-.01,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표 2.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인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관계형성 어려움 ( $F=67.31^{***}, R^2=.25$ $\Delta R^2=.004$ )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X1)	-.12	.26	-4.8	-.63	.39
	감각처리 민감성(W)	.28	.10	2.95**	.09	.47
	X1×W	-.01	.00	-1.99*	-.01	-.00
신체화 ( $F=68.20^{***}, R^2=.25$ $\Delta R^2=.0002$ )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X1)	-.63	.27	-2.30*	-1.17	-.09
	감각처리 민감성(W)	.10	.10	.95	-.10	.30
	X1×W	.00	.00	.44	-.00	.0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 $F=44.76^{***}, R^2=.18$ $\Delta R^2=.0026$ )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X1)	-.92	.27	-3.40***	-1.45	-.39
	감각처리 민감성(W)	-.09	.10	-.88	-.28	.11
	X1×W	.00	.00	1.40	-.00	.01
공격행동 ( $F=54.00^{***}, R^2=.21$ $\Delta R^2=.0001$ )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X1)	-.34	.20	-1.70	-.73	.05
	감각처리 민감성(W)	.09	.07	1.23	-.05	.24
	X1×W	-.00	.00	-.27	-.01	.00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 $F=61.65^{***}, R^2=.23$ $\Delta R^2=.0017$ )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X1)	-.28	.25	-1.12	-.76	.21
	감각처리 민감성(W)	.18	.09	1.97*	.00	.36
	X1×W	-.00	.00	-1.17	-.01	.00

주. \*  $p<.05$ , \*\*  $p<.01$ , \*\*\*  $p<.001$



표 3.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관계형성 어려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건부 효과

감각처리 민감성	효과계수	SE	t	신뢰구간	
				LLCL	ULCL
상(M+1SD)	-.73	.07	-10.11***	-.88	-.59
중(M)	-.63	.05	-12.85***	-.73	-.53
하(M-1SD)	-.55	.06	-8.64***	-.67	-.42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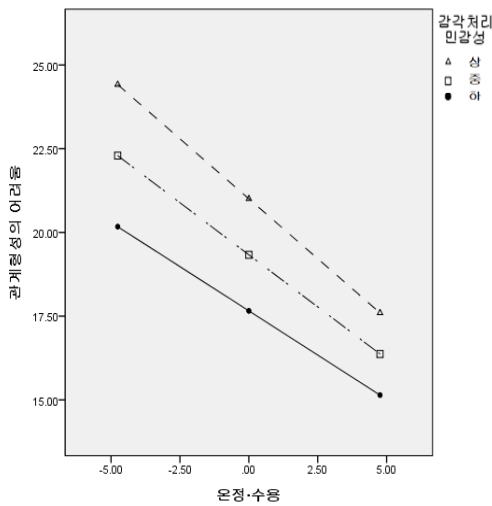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관계형성 어려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0.4% ( $\Delta R^2 = .004$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고자 Aiken과 West, Reno(1991)가 제안한 대로 감각처리 민감성을 상중하 세 수준(평균을 기점으로 표준편차 1을 증감)으로 나누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조절 효과는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을 참조하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하 수준에서 높은 집단

으로 갈수록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Johnson-Neman 분석을 통해 유의영역을 확인한 결과, 감각처리 민감성은 34.75 이상(99.68%)일 경우,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하위변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 $B = .96, p < .001$ )과 감각처리 민감성( $B = .10, p < .05$ )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여( $B = -.00, p < .05$ ),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0.45% ( $\Delta R^2 = .0045$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절 효과의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고자 부트스

표 4.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인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관계형성 어려움 ( $F=87.22^{***}$ , $R^2=.30$ $\Delta R^2=.0002$ )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X2)	.47	.21	2.25*	.06	.87
	감각처리 민감성(W)	.05	.04	1.16	-.03	.13
	X2×W	.00	.00	.37	-.00	.01
신체화 ( $F=92.82^{***}$ , $R^2=.31$ $\Delta R^2=.0000$ )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X2)	.51	.21	2.41*	.09	.92
	감각처리 민감성(W)	.12	.04	2.70**	.03	.20
	X2×W3	-.00	.00	-.08	-.00	.0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 $F=87.72^{***}$ , $R^2=.30$ $\Delta R^2=.0045$ )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X2)	.96	.20	4.76***	.56	1.35
	감각처리 민감성(W)	.10	.04	2.35*	.02	.18
	X2×W	-.00	.00	-1.99*	-.01	-.00
공격행동 ( $F=115.42^{***}$ , $R^2=.36$ $\Delta R^2=.0001$ )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X2)	.39	.14	2.72**	.11	.67
	감각처리 민감성(W)	.04	.03	1.30	-.02	.10
	X2×W	.00	.00	.31	-.00	.00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 $F=135.72^{***}$ , $R^2=.40$ $\Delta R^2=.0000$ )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X2)	.59	.18	3.37***	.25	.93
	감각처리 민감성(W)	.04	.04	1.06	-.03	.11
	X2×W	.00	.00	.07	-.00	.00

주. \* $p<.05$ , \*\* $p<.01$ , \*\*\* $p<.001$

표 5.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건부 효과

감각처리 민감성	효과계수	s.e	t	신뢰구간	
				LLCL	ULCL
상( $M+1SD$ )	.49	.05	9.47***	.39	.59
중( $M$ )	.57	.04	15.49***	.50	.64
하( $M-1SD$ )	.64	.05	11.85***	.54	.75

주. \*\*\* $p<.001$

트래핑 방식으로 단순회귀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조절 효과는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상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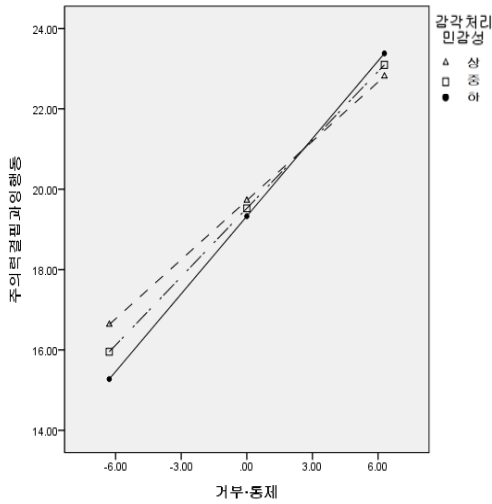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록 급격해졌다. 추가로 Johnson-Neman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영역을 찾아본 결과, 관찰된 범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전환되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 범위에 포함된 모든 값이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하위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첫째, 아동의 관계형성 어려움에 대해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 $B=1.17, p<.001$ )과 감각처리 민감성( $B=.18, p<.001$ )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여( $B=-.01, p<.01$ ).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1.08%( $\Delta R^2=.0108$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참조하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하 수준에서 상 수준으로 갈수록 급격해짐을 알 수 있다. 추가로 Johnson-Neman 분석을 통해 유의영역을 확인한 결과, 감각처리 민감성은 136.79 이하일 경우,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신체화에 대해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 $B=1.34, p<.001$ )과 감각처리 민감성( $B=.27, p<.001$ )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였고,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B=-.01, p<.001$ ) 역시 유의하여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1.86%( $\Delta R^2=.0186$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건부 효과 결과에서도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상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갈수록 급격해졌다. 추가로 Johnson-Neman 분석결과에서는 감각처리 민감성은 125.14 이하일 경우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 $B=1.26, p<.001$ )과 감각처리 민감성( $B=.17, p<.001$ )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였고,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B=-.01, p<.001$ ) 역시

유의하여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1.86%( $\Delta R^2 = .0186$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고자 감각처리 민감성을 상중하 세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조절 효과는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상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갈수록 급격해졌다. 추가로 Johnson-Neman 분석결과에서는 감각처리 민감성은 125.26 이하일 경우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격행동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 $B = .95, p < .001$ )과 감각처리 민감성( $B = .15, p < .001$ )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였다.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B = -.01, p < .001$ ) 역시 유의하여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1.53%( $\Delta R^2 = .0153$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 효과는

표 6.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검증

종속변인		B	SE	t	신뢰구간	
					LLCI	ULCI
관계형성 어려움 ( $F = 87.95^{***}, R^2 = .30$ $\Delta R^2 = .0108$ )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X3)	1.17	.21	5.72 <sup>***</sup>	.77	1.58
	감각처리 민감성(W)	.18	.04	4.65 <sup>***</sup>	.11	.26
	X3×W	-.01	.00	-3.10 <sup>**</sup>	-.01	-.00
신체화 ( $F = 102.71^{***}, R^2 = .33$ $\Delta R^2 = .0186$ )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X3)	1.34	.20	6.56 <sup>***</sup>	.94	1.74
	감각처리 민감성(W)	.27	.04	6.90 <sup>***</sup>	.19	.35
	X3×W	-.01	.00	4.16 <sup>***</sup>	-.01	-.00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 $F = 63.25^{***}, R^2 = .23$ $\Delta R^2 = .0186$ )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X3)	1.26	.20	6.17 <sup>***</sup>	.86	1.67
	감각처리 민감성(W)	.17	.04	4.42 <sup>***</sup>	.10	.25
	X3×W	-.01	.00	-3.87 <sup>***</sup>	-.01	-.00
공격행동 ( $F = 108.83^{***}, R^2 = .33$ $\Delta R^2 = .0153$ )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X3)	.95	.15	6.55 <sup>***</sup>	.37	1.24
	감각처리 민감성(W)	.15	.03	5.46 <sup>***</sup>	.10	.21
	X3×W	-.01	.00	-3.78 <sup>***</sup>	-.01	-.00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 $F = 167.42^{***}, R^2 = .45$ $\Delta R^2 = .0055$ )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X3)	1.07	.17	6.45 <sup>***</sup>	.74	1.39
	감각처리 민감성(W)	.12	.03	3.72 <sup>***</sup>	.06	.18
	X3×W	-.00	.00	-2.50 <sup>*</sup>	-.01	-.0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건부 효과

종속변수	감각처리 민감성	효과계수	SE	t	신뢰구간	
					LLCL	ULCL
관계형성 어려움	상(M+1SD)	.43	.05	7.94***	.33	.54
	중(M)	.56	.04	14.06***	.48	.63
	하(M-1SD)	.68	.06	11.92***	.57	.79
신체화	상(M+1SD)	.35	.05	6.38***	.24	.46
	중(M)	.51	.04	12.97***	.43	.59
	하(M-1SD)	.68	.06	11.91***	.56	.79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상(M+1SD)	.34	.05	6.21***	.23	.45
	중(M)	.49	.04	12.50***	.41	.57
	하(M-1SD)	.64	.06	11.37***	.53	.75
공격행동	상(M+1SD)	.31	.04	8.08***	.24	.39
	중(M)	.42	.03	14.98***	.36	.47
	하(M-1SD)	.52	.04	13.02***	.44	.60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상(M+1SD)	.59	.01	13.27***	.50	.67
	중(M)	.66	.03	20.90***	.60	.73
	하(M-1SD)	.74	.05	16.26***	.65	.83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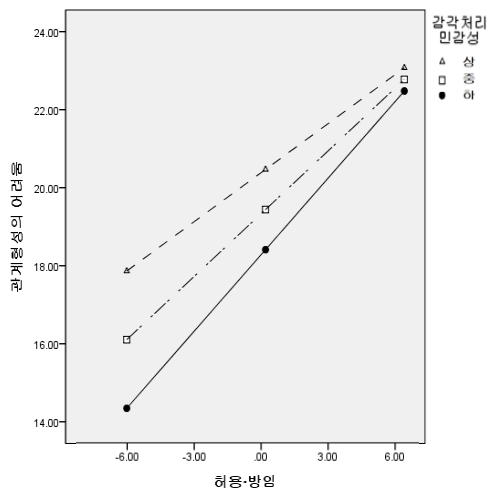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관계형성 어려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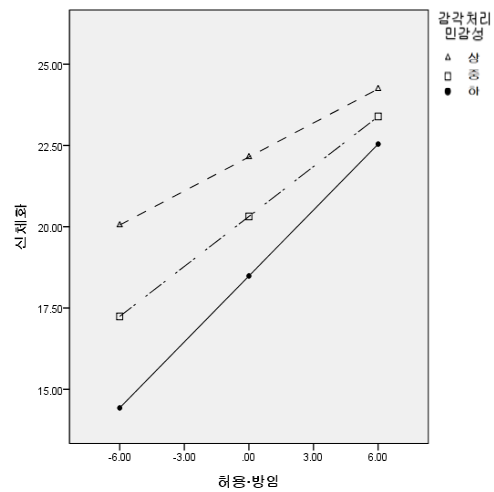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신체화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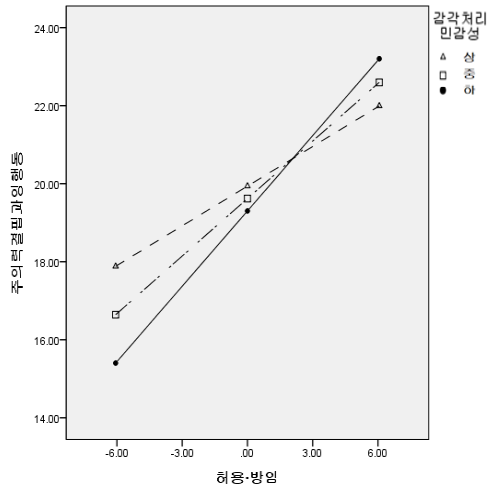


그림 5.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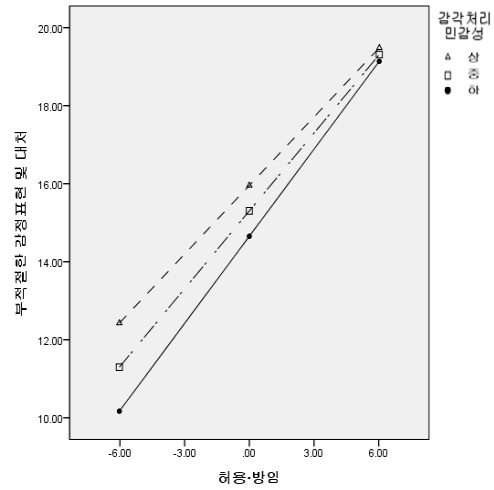


그림 7.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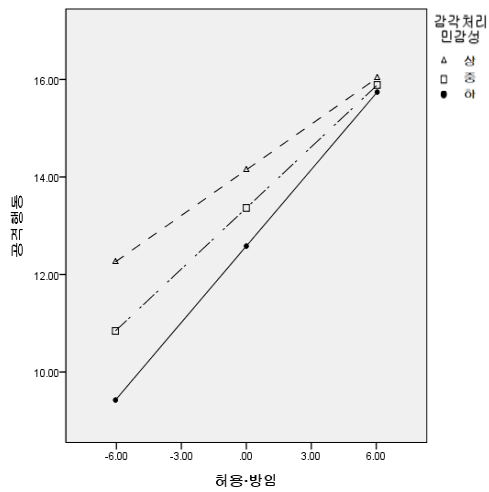


그림 6.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공격행동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상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갈수록 급격해졌다. 추가로 Johnson-Neman 분석결과에서는

감각처리 민감성은 133.66 이하일 경우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의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 $B=1.07, p<.001$ )과 감각처리 민감성( $B=.12, p<.001$ )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유의하였다. 그리고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B=-.00, p<.05$ ) 역시 유의하여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상호작용항이 추가되면서 설명력은 0.55% ( $\Delta R^2=.0055$ )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절 효과는 모든 수준의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별 기울기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상 수준에서 하 수준으로 갈수록 급격해졌다. 추가로 Johnson-Neman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영역을 확인해본 결과, 관찰된 범위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전환되는 지점이 나타나지 않

있고, 전체 범위에 포함된 모든 값이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각의 하위변인이 정서행동문제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관계형성 어려움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가 있었다. 어머니로부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많이 받을수록 관계형성 어려움이 더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각처리 민감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단순 기울기 분석과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 결과에서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 및 수용적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이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더욱 강력하게 감소시킴을 보여준 것이다. 이 결과는 반응적인 특성이 있는 아동은 긍정적인 환경에서 강점을 발휘한다고 한 Pluses 등(2018)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리고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중재나 심리학적 경험치가 포함된 환경적 영향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Aron, & Aron, 1997; Aron, Aron, & Jagiellowicz, 2012)고 한 연

구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아동이 낮은 아동에 비해 긍정적 경험에 해당하는 우울 증상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더 큰 효과를 얻었다는 연구(Pluess, & Boniwell, 2015)와도 유사하다. 그리고 Aron과 Davies(2005), Aron(2012)이 보고한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감각처리 민감성은 상호연관이 있고, 민감성에 따라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대로 해석해보면, 민감성이 떨어지는 아동들이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Pluess 등(2018)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또한 감각처리 민감성은 긍정적 환경 자극으로부터 받는 효과가 높아 개인의 강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연구자들(Booth et al., 2015)의 주장도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보를 더욱 깊이 있게 처리하고, 민감한 신경계를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 중재를 더 잘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Booth et al., 2015). 그리고 어머니가 온정 및 수용적으로 대했을 때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이를 더 깊이 있고 강하게 흡수하여 내면화하고 또래관계에 적용하여 관계형성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온정적 격려나 정서적 수용 등을 흡수하여 아동이 또래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원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과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조절 효과가 있었다. 단순 기울기 분석과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 결과에서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절 효과가 유의하였다. 특히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아동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거부적 통제적으로 양육할 때 아동의 주

의력 결핍 과잉행동이 더욱 많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민감성이 낮은 아동이 부정적인 양육을 주로 받고 긍정적인 양육을 적게 받았을 때 정서행동문제는 더욱 증가하여 아동의 환경적 민감성의 조절 효과를 밝힌 연구(Slagt et al., 2018)와 일치한다. 이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주의력 문제를 지닌 아동들이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 주의력 문제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어머니가 거부 및 통제적으로 양육할 때 상대적으로 주의력 결핍 문제행동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동들은 자신의 민감성을 활용하여 관계적 차원에서 정보를 더욱 깊이 있게 처리한 결과(Booth et al., 2015)라 볼 수 있다.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어머니의 거부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 조절 단서로 이용하여 주의력 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아동들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경험했더라도 자신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황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였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조절 행동이 요구되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집단상황과 학습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민감성을 활용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조절 능력을 발휘하여 주의력 문제를 덜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민감성이 떨어지는 아동들은 집단상황이나 학습상황에서 스스로 조절적 행동을 위한 단서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부정적 환경으로부터 더욱 강한 영향을 받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Ahadi, & Basharpour, 2010; Aron et al., 2005; Liss et al., 2005; Slagt et al., 2018)는 선행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위의 선행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연령이 유아나 아동 초기 등으로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대상은 연령이 4, 5, 6학년에 해당하는 학령 후기의 아동으로 학교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상황인식과 이해 능력이 높아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일지라도 부정적 양육 환경이 정서행동문제로 발전되는데 영향력이 미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위의 선행연구(Liss et al., 2005)에서 사용한 부정적 양육행동 문항은 체벌, 언어적 학대, 잔소리, 화와 같은 강도 높은 청각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부통제 척도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은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이 조절 효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 기울기 분석과 Johnson-Neyman에 의한 유의미성 검증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허용 및 방임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신체화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그리고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감정표현 및 대처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민감성이 낮은 아동들이 지닌 심리적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아동들은 선천적으로 친구의 욕구를 감지하거나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형성에 필요한 자원을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방임적으로 양육하였을 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얻을 기회가 적었으므로 관계 능력이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감성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어머니가 적절한 훈육이나 상호작용적인 개입이 없이 허용적이고 방임적으로 양육하였을 때 자신의 외현적 행동 문제와 같은 취약한 특성이 개선될 기회도 적을 것이다. 즉, 이 아동들은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 조절을 할 훈련 기회가 부족하므로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대처하고, 공격성이나 주의력 문제 등의 행동문제로 쉽게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결과를 반대로 해석하면,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수준의 아동들은 부모가 허용 및 방임적으로 양육하더라도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다고 볼 수 있다.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와의 관계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감각처리 민감성이 아동의 부정적 양육 환경 내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킨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 연구들과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Garnezy(1985)는 보호 요인이란 부정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큰 위험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이 그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Garnezy(1985)는 스트레스-저항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격특성이 가족 및 외부지지와 더불어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본연구결과가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아동의 긍정적 기질이나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 변인이 불균형적 가족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란 아동들의 삶에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중재한다고 한 연구들(Rae-Grant, Thomas, Offord, Boyle,

1989; Rutter, Cox, Tupling, Berger, & Yule, 1975; Seifer, Sameroff, Baldwin, & Baldwin, 1992)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아동이 어머니의 허용 및 방임적 양육을 받고도 정서행동문제를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낸다는 결과는 감각적으로 민감한 아동들의 행동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상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모든 상황에서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고(Aron, 2012), 환경으로부터 얻은 대처 전략을 더 많이 내재화한다(Pleuss, & Boniwell, 2015). 이 아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이 높고, 기존에 내재화된 대처전략을 잘 활용하므로 어머니가 허용적이고 방임적으로 양육하더라도 자신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서행동문제로 발전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흥미로운 또 하나의 결과는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대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의 조절효과는 그래프상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즉,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높은 집단의 아동에 비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가장 높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아동과 주의력 문제를 지닌 아동의 유사한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은 아동에 대한 Aron(2012)과 Pleuss와 Boniwell(2015)의 주장을 반대로 해석하면,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아동들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취약하고, 이해력이 낮으며,

환경으로부터 얻은 대처 전략을 내재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의력 문제를 지닌 아동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기 통제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내재화 과정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정지인, 2010). 어머니의 거부통제적이거나 허용방임적인 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의 취약한 내재화 과정을 극복할 기회가 부족했을 것이다. 거부통제적이고 허용방임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들은 취약한 내재화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주면서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정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고 주의력 결핍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양육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에서 감각처리 민감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하위변인에 따라 조절 효과의 양상이 달랐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설계를 통해 조절 메커니즘을 더욱 면밀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감각처리 민감성이 낮은 아동 집단에 어머니가 허용 및 방임적으로 양육할 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의 모든 하위변인은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이 결과에서 허용 및 방임적 양육 특성이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면밀하게 밝혀내는 연구가 수행되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허용 및 방임적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감각처리 민감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행동을 개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감각처리 민감성은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일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한 한계가 있다. 이 변인은 자극에 대한 높은 반응성이나 낮은 역치와 같은 환경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미적 감수성과 같은 긍정성을 지닌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특수하게 고려하여야 할 기질이자 성격 요인(손옥선, 김진숙, 2021)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려원, 박중규, 오경자 (1997). 주의산만을 주소로 하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6(2), 133-149.
- 곽소현, 김순옥 (2006).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가정과 삶의질 연구*, 24(6), 95-116.
- 국립특수교육연구원 (1999). KISE 정서·행동 장애학생 선별척도. 경기: 국립특수교육연구원.
- 길혜지,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 김명선, 하은혜 (2019). 유아의 감각처리조절과 문제행동의 관계.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23(1), 31-46.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련 (2003).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양육태도와

- 문제행동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화 (2009). 우울 및 비우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옥선, 김진숙 (2021). 한국판 매우 민감한 사람 척도(K-HSPS-18)의 재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049-1075.
- 송하나 (2017).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불순응과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 200-201.
- 이경남 (2004). 초기청소년의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2, 43-54
- 이형민 (2019).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적 효과.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61.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3.
- 정문자,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5(5), 11-27
- 정지인 (2010). Interactive metronome과 인지증진 치료가 ADHD 성향 남아의 주의력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윤미, 이 숙 (201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태도,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외현화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0(3), 21-39.
- Ahadi, B., & Basharpour, S. (2010).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personality dimens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Applied Sciences*, 10(7), 570-574.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Aron, E. N. (2012). Temperament in psychotherapy: Reflections on clinical practice with the trait of sensitivity. In M. Zentner & R. L. Shiner (Eds.), *Handbook of Temperament*, 645-670.
- Aron, E. N., Aron, A. (1997).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its relation to introversion and emoti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45-368.
- Aron, E. N., Aron, A., & Davies, K. M. (2005). Adult shyness: The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Sensitivity and an Adverse Childhood Environ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181-197.
- Aron, E. N., Aron, A., & Jagiellowicz, J. (2012).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 review in the light of the evolution of biological respons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262-282.
-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 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 135(6), 885.
- Belsky, J., & Pluess, M. (2013). Genetic moderation of early child-care effects on social functioning across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4*, 1209-1225.
- Benham, G. (2006).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tress and physical symptom repo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7), 1433-1440.
- Booth, C., Standage, H., & Fox, E. (2015).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24-29.
- Drake, J. E., Stoddard, F. J., Murphy, J. M., Ronfeldt, H., Snidman, N., Kagan, J. ...Sheridan, R. (2006). Trauma severity influences acute stress in young burned children. *Journal of Burn Care and Research, 27*(2), 174-182.
- Ellis, B. J., Boyce, W. T., Belsky, J.,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11).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the environment: An evolutionary neurodevelopmental theor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1), 7-28.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4*, 213-233.
- Goldsmith, H. H., Van Hulle, C. A., Arneson, C. L., Schreiber, J. E., & Gernsbacher, M. A. (2006). A population-based twin study of parentally reported tactile and auditory defensivenes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78-392.
- Hamberg, D. A. (1992).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Today's Children: Creating a future for a generation in crisis*, 171-180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ershfield, H., Ghahremani, D., Aron, A., Aron, E. N., Lichty, W., Mazaika, P. K., et al. (2007). Psychotherapy and the Highly Sensitive Person. *Psychology Developmental Review, 26*(2), 175-212.
- Kauffman, J. M. (1993). Special problems in the inclusion of students with emotional or behavioural disorders in general education classrooms and schools. *Special Education Perspectives, 2*(1), 23-28.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54-64.
- Kinnealey, M., & Fuiiek, M.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ory defensiveness, anxiety, depression and perception of pain in adults. *Occupational Therapy International, 6*(3), 195-206.
- Liss, M., Mailloux, J., & Erchull, M. J.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lexithymia, autism, depression,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3), 255-259.
- Liss, M., Timmel, L., Baxley, K., & Killingsworth, P. (2005).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nd

- its relation to parental bonding, anxiety,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8), 1429-1439.
- Meyer, B., & Carver, C. S. (2000). Negative childhood accounts, sensitivity, and pessimism: A study of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4(3), 233-248.
- Miller, L. J., & Summers, C. (2001). Clinical applications in sensory modulation dysfunc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onsiderations. In Roley, S. S., Blanche, E. I., & Schaaf, R. C. (Eds.),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ensory Integration with Diverse Populations*, 247-274.
- Neal, J. A., Edelmann, R. J., & Glachan, M. (2002). Behavioural inhibition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s there a specific relationship with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1(4), 361-374.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luess, M., Assary, E., Lionetti, F., Lester, K. J., Krapohl, E., Aron, E. N., & Aron, A. (2018). Environmental sensitivity in children: Development of the highly sensitive child scale and identification of sensitivity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54(1), 51-70.
- Pluess, M., & Boniwell, I. (2015).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predicts treatment response to a school-based depression prevention program: Evidence of vantage sensi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2, 40-45.
- Rae-Grant N, Thomas E, Offord D, Boyle, M. H. (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8(2), 262-268.
- Robles, R. P., Claustre, M., Ballabriga, J., Diéguez, E. D., & Da Silva, P. C. (2012). Validating Regulatory Sensory Processing Disorders Using the Sensory Profile and Child Behavior Checklis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6), 906.
- Rutter, M., Cox, A., Tupling, C., Berger, M., & Yule, W. (1975). Attainment and adjustment in two geographical areas: I-the prevalence of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6(6), 493-509.
- Seifer, R., Sameroff, A. J., Baldwin, C. P., & Baldwin, A. (1992). Child and family factors that ameliorate risk between 4 and 13 years of ag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5), 893-903.
- Slagt, M., Dubas, J. S., Van Aken, Marcel A. G., Ellis, B. J., & Deković, M. (2018).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as a marker of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54(3), 543-558.
- Smolewska, K. A., McCabe, S. B., & Woody, E. Z. (2006).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highly sensitive person scale: The components of sensory-processing sensitivity and their relation to the BIS/BAS and "Big F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269-1279.
- Weyn, S., Van Leeuwen, K., Pluess, M., Lionetti,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F., Goossens, L., Bosmans, G., ...& Bijttebier, P. (2021).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sensitiv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highly sensitive child scale-21 item version. *Assessment*, 29(4), 607-629.

원 고 접 수 일 : 2022. 09.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2. 10. 11

게 재 결 정 일 : 2022. 10. 24

## The Moderating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eejung Cho

Mom's Talk Talk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Manager

Juyeo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tudents in the 4th, 5th, and 6th grades from Gwangju and Jeonn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from 659 children were collected through offline and online surveys and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1).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warm and receptiv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relationship difficult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jection and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showe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missive and neglectful parenting behavior and all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ounseling strateg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ub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Key words* : sensory processing sensitivity, parenting behavior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oderating effect